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所謂二大法令의 發布(一)

關稅會議前途樂觀 ◇…中全權王正廷氏談

實地調査는 危險 內亂과 土匪의 猖獗로

馮氏의 外遊中止를 政府로부터 運動中

『이』氏事件에 對한 中國政府의 態度를 『카라한』氏에게 表示

東中鐵道紛糾는 解決의 前途尙今遼遠

寬城子의 中國兵 哈爾賓에 輸送

(北京二十五日發) 昨日哈爾賓에서의 電報에 依하면 寬城子의 中國軍隊一千四百名은 全部二十三日中에 哈爾賓에 輸送되엿스며 客車及機關車는 依然中國軍隊에게 占領되여 鐵路總司令部는 交通署를 開設하고 客車券을 印刷發賣할 計劃인데 滿鐵은 自動車隊를 組織하야 長春哈爾賓의 連絡을 開始하엿스며 더욱이 目下中國側의 電報檢閱은 嚴重을 極하고 잇다 더라

若槻內相이 臨時首相兼攝

(東京電) 二十六日午前의 院內閣議에서 加藤首相病勢로 말미암아 內閣官制第八條第一項에 依하야 若槻內相으로써 代理首相으로 하기로 決하고 午後에 緣本翰長은 赤坂東宮御所에 參內上奏御裁可를 得하고 左와 如히 任命發表하엿다

內務大臣從三位勳一等 若槻禮次郞
臨時內閣總理大臣兼攝

對中外交決議 上院에 提出困難

(東京電) 公正會의 一部에서는 前報와 如히 貴族院에 對中外交決議案을 提出하라 하는 論者가 잇다는데 其裏面에는 後藤子가 此를 援助하고 잇스나 後藤子側으로 親近한 人等은 도로혀 子의 聲望을 傷하야 全院一致의 充分한 餘望이 업는 以上 表面에 나타내기를 欲求치 안는다 하며 特히 硏究會에서는 有力한 幹部가 强硬한 反對를 하고 잇슴으로 實現이 困難하다 더라

加藤首相病勢依然

(東京電) 加藤首相의 病狀은 二十六日午前八時體溫三十八度로 喘息依然함으로 引續 安靜을 要하고 當分登院치 못할 模樣이라 더라

三浦子病勢危篤

(東京電) 三浦梧樓子는 昨年二月熱海에서 發病하야 五月東京本邸에 歸한 後 病勢는 一進一退하던中 二十六日朝六時二十分俄然重態에 陷하엿다는데 病名은 尿毒症으로 脈搏百廿、呼吸二十八、體溫三十八度八이며 痙攣外지 잇서 絕望狀態에 在한터인바 朝來의 慰問客은 大櫻老頭山滿久原男之助高橋是淸의 諸氏를 爲始하야 邸內는 非常히 混雜中이라 더라

飢寒이 滋甚한 西鍾窮民救濟에 一般人士努力과 同情

炭坑鐵鑛에 出稼케 한다고

黃海道鳳山郡西鍾面에서는 載寧江河川工事中止로 因하야 六百工夫가 負老携幼하고 定處업시 流離하는 者와 解雇되야 方今嚴冬雪寒에 飢餓와 寒에 하는 慘境에 陷한 窮民의 救濟策을 面民一同이 郡當局과 土木課에 陳情外지 提出하엿다 함은 旣報되엿거니와 去二十五日 郡廳에서는 그 困難한 貧民들을 各炭坑鐵鑛에 出稼케 하려하며 其外 機關을 貸付하야 收入의 餘를 講하는 公文을 發하엿다 더라(沙里院)

臨時救急의 被服食糧分配

沙里院市內各言論機關에서는 西鍾面民이 載寧江河川改修工事中止로 因하야 大端히 窮迫함을 當한바 記者諸氏는 現場에 當到하야 其現狀을 實査한 後 卽是各靑年團體와 京城飢饉救濟會沙里院後援會에 其慘狀을 通過하고 時急救濟코저 當地人士의 同情한 米十七斗와 救濟會後援會에 잇는 衣服三十件을 最急者十七人에게 衣服一件、米一斗式을 施與하엿다는데 其他無數한 窮民을 爲하야 同情하실 이는 本支局으로 送付하기를 바란다 더라(沙里院)

梁範錫氏의 百七十人救恤

西鍾面窮民等의 刻一刻死線에 陷하는 慘狀을 본 當地面長梁範錫氏는 此等窮民에게 同情하야 去二十四日當地郡庶務主任과 駐在所巡查部長等立會下에 四十三戶百七十人에게 一人分稗一斗式을 施給하엿스며 아즉 其外部落極貧民에 對하야 一兩日中으로 同樣의 救助를 하겟다는데 該面에 住居하는 窮民等은 梁氏에 對하야 感謝不已한다 고(沙里院)

順天에 女子靑年創立

女子運動이 寂寞한 順天郡에서는 金馬理亞女史外七人發起로 去九日順天女子靑年會發起總會를 開會하고 其後準備가 完成되야 去十六日同郡金谷里金星宇氏家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얏는데 順天靑年會委員長韓泰善、全南東部靑年聯盟常務委員朴永震兩氏의 祝辭도 잇섯는데 同會綱領及選擧된 委員은 如左하다 더라

◇委員
委員長 朴玉信 庶務部 趙南伊 郭富主 敎育部 金馬理亞 金星宇 社會部 孫永恩 金貞玉 (順天)

安州에 製絲講習創設 女子五十名募集

安州地方에는 染織所도 多數하고 製絲業者도 增加되는 傾向이나 普通足踏機使用으로 因하야 二十五貫三十貫以上의 極修品은 產出키 不能함으로 當地東亞支局長金偉濟、价川有志玄基夏兩氏의 發起로 當地에 製絲講習所를 設置코저 目下準備中인데 講師는 京城製絲株式會社의 技師를 招聘하야 十五二十貫絲等의 製絲方法을 實地敎習케 할터이며 實習生은 十三歲以上三十歲以內女子五十名을 來月廿七日外지 募集하야 三個月期間으로 三月四日부터 開學하리라 더라(安州)

安城農校 盟休問題後報 엇지면 解決될 듯

安城農業補習學校盟休事件에 對하야 學父兄會가 開催되다 함은 旣報한바 어니와 同會는 豫定과 가티 去二十四日安城公普校內에서 臨時議長徐相準氏司會로 開會되야 長久한 時間을 두고 同校長倉島氏와 여러가지로 協議한 結果 모든 問題가 解決될 듯 하다는데 退學處分解除에 對하야는 前記校長이 『此는 道에서 外지 아는 것임으로 自己單獨히 處理키 難하다』 고 함으로 이 問題의 解決與否는 아즉도 明確치 못하다 하며 學父兄側에서는 徐相準氏를 代表로 選擧하야 學校當局과 協定을 一任하고 散會하엿는데 生徒一同은 其翌日인 二十五日에 登校는 하엿다 더라(安城)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全北女高普의 位置에 對하야

◇今番全北道立女子高等普通學校를 全州에 設置하기로 하고 全北各郡을 通하야 設立寄附金을 募集하여 오던中 益山郡에서도 去十日에 郡民有志會를 當郡會議室에 開하고 此를 協議한바 가 잇섯는데 問題는 意外로 轉換되여 學校位置를 裡里에 置치 아니하면 寄附에 應치 아니하겟다 하며 其後有志들은 다시 會合하야 位置變更을 期하기로 決議하엿다 함은 旣히 本報에 報道되엿거니와 筆者는 此에 對하야 益山有志及關係各郡諸氏에게 一言을 告코저 한다

◇諸氏의 稔知하는 바와 如히 裡里로 말하면 湖南의 第一關門일 뿐더러 子侄敎育方面으로 보아서 第一便宜한 地帶라 하겟스니 卽南으로 湖南線인 金堤 井邑 扶安 高敞 淳昌 西으로 支線인 沃溝 群山 東으로 全北鐵道인 全州 北으로 他道로 湖南線인 論山 江景等地를 沿하야 連鎖的交通地點이다

◇그러나 全州로 말하면 아무리 道廳所在地라는 것을 惟一의 信條로 삼는다 하더라도 交通關係로 볼 때에 全北에 잇서서 一隅之地에 不過하며 陸路로도 第一距離가 接近한 곳은 山邑 任實 南原 鎭安等數郡에 不過하고 茂朱 錦山諸郡은 平素에도 大田으로 湖南線을 經하야 必히 裡里를 通過함이 아니면 全州는 往來하지 못하는 것은 事實이 아닌가

◇如斯함에 不拘하고 年前에도 男子高等普通學校를 全州에 置하게 된 것은 純全히 엇더한 權力下에 抑壓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러서 今番에도 맛당한 適地는 버리고 구타여 全州로 位置를 定코자 하는 것은 當局者의 處置가 模糊할 뿐 아니라 關係諸郡의 民意를 無視함이라 겟스며 또는 郡民各位의 熱誠도 不足함이 아닌가 한다 諸氏여! 蹶起하야 奮鬪할지어다 今番女子高普를 裡里에 置하기外지 (盧舟)

光州事件에 特派員出發

全南光州靑年及勞働共濟會紛糾事件을 調査키 爲하야 全北靑年聯盟에서는 李龍起 民衆運動者同盟에서는 金哲氏를 特派員으로 하야 지난 二十二日午前七時裡里發木浦行列車로 光州에 出發하엿다 더라(裡里)

江西模範夜學 貯金도 奬勵

平南江西郡坊大面八里新山浦에서는 同地有志金世鎭氏의 熱誠으로 夜學講習所를 設立하고 甲乙丙三班에 分하야 朴鉉俊 宋基柱 金正淳等三氏敎授下에 現在男女生徒가 六十餘名에 達하야 好成績을 得한다 하며 또 貯蓄奬勵를 組織하고 男生徒에게 每月一圓 女生徒에게는 每月五十錢式貯金케 하야 百餘圓에 達하엿다 더라(江西)

馬山公普事件과 卒業生大會의 決議 聲明書作成과 輿論喚起

旣報馬山公普敎員言動問題로 社會輿論이 一時沸騰하던바 去二十四日同校卒業生六十餘名이 同校講堂內에서 卒業生大會를 開催하고 金桂浩氏司會와 金炯善氏의 趣旨說明과 發起人側經過報告가 잇슨 後 討議事項에 入하야 卒業生諸氏의 輿奮된 辯論이 잇슨 後 左와 如한 決議가 잇섯다 더라

◇決議
一、福爵寺에 生徒를 보낸 것은 現敎育制度下에 義務敎育上不可하며 따라 僧侶一人에게 天眞爛漫한 少年의 將來를 誤하얏슨즉 現福爵寺內에 잇는 生徒를 復校식히는 同時에 校長이 一般에게 謝過할 것
二、福爵寺主持를 社會的으로 膺懲할 것
三、少年問題에 聲明書를 作成하야 全朝鮮的으로 輿論을 喚起할 것
(가) 少年問題에 關한 大講演會를 開催할 것
四、久保訓導에 對한 件은 實行委員에게 一任할 것
五、今井訓導에게는 注意식힐 것
六、愼訓導에게는 忠告할 것
七、今春同窓會臨時大會를 開催할 것

實行委員 金炯善 金貫東 高相穆 金明奎 金亨潤(馬山)

論山傭友親睦 來廿八日發起總會

論山市內에는 雇傭人이 多數하나 特別한 모임이 업슴을 遺憾하야 某有志의 發起로 來廿八日論山市內에 모혀 論山傭友親睦會를 組織한다는데 當地에 居住하는 雇傭人諸氏는 多數參席하기를 바란다 더라

◇發起人氏名
田福 李京洙 金容福 金鎔 尹吉重 南殷盛 姜泰習 外數十人(論山)

勞組講演會 平壤麵屋

勞働組合에서는 京城에 잇는 權泰榮、金復榮兩氏의 來壤을 期會하야 來三十日下午七時半當地薛岩里天道敎堂內에서 講演會를 開催한다는데 座席을 整頓키 爲하야 若干의 入場料를 밧는다 하며 演題及演士는 左와 如하다 더라

우리가 본 社會狀 權泰榮
勞働者의 現在와 將來 金復榮 (平壤)

仁普增築期成會 九圓以上納稅者約三百名으로 二十五日에 新組織

仁川官民有志의 發論으로 仁川公立普通學校增築臨時期成會를 組織하엿다 함은 이미 報道한바 어니와 同期成會로서는 仁川府學校費賦課金戶別割年額九圓以上(二十二等外지)을 納稅하는 朝鮮人二百九十餘名을 期成會員으로 하고 增築工費三萬一千圓中一萬圓을 負擔케 하기로 建議되야 지난 二十五日山手町公會堂에 前記九圓以上納稅者를 招請하야 完全한 期成會를 組織하엿는데 會長張錫佑氏와 副會長鄭順澤氏의 『現下仁普兒童은 一千四百名 學級은 二十三學級인데 就中一學級는 普校를 新築하기 前敎室임으로 그 木材가 陳腐하엿슬뿐 아니라 敎室이 狹少하야 約四十名밧긔 收容치 못함으로 此를 改築하려 함이라 하며 또는 來新學期부터는 男子部六學年의 一學級과 女子部六學年의 一學級을 增加하게 됨으로 不可不三學級의 敎室을 增築하여야 할 것인데 이 機會를 따러 理科室、唱歌室、機械室、裁縫室、準備室外지 또한 增築하면 全部八校室의 增加를 見하겟스며 同時에 完全無缺한 學校舍이 成立할 수 잇슴은 더러 男子部와 女子部를 分離할 수 잇다』 는 等說明이 잇나자 곳 事를 進行하고 다시 完全한 期成會를 組織할 必要가 잇다 하얏스나 前日臨時로 被選된 執行委員을 留任하기로 一部提議가 잇서 可決된 同時에 執行委員四人을 左와 如히 補選하엿스며 會員의 資格은 臨時期成會에서 建議한바와 가티 戶別割二十二等外지 負擔하고 徵收方法은 執行委員에게 一任하기로 可決되엿다 더라(仁川)

金允鵬、高春吉、崔寮浩、金興完

會報發行準備 龍道靑年會에서

延白郡龍道靑年會에서 去九日趙東鮮氏家에 臨時任員會를 開催하고 會務를 刷新하는 同時 實地職線에 立하야 農村振興과 文化啓發에 大大的努力하키 爲하야 討議한 結果 爲先會報를 發行하야 會員其他에게 縱覽식히는 同時 從來에 會長制이든 것을 委員制로 變更키로 可決하고 左記와 如히 委員을 選擧하엿다는데 會報發行에 關하야 日間執行委員會를 開催한다 더라

◇執行委員氏名
執行委員長 崔奎植 庶務部委員 金章式 金義中 敎養部委員 白樂信 趙東鮮 社交部委員 金延植 劉東赫 奬學部委員 李鍾聲 執行委員諸氏(延白)

農業補習校 設置運動 陳情委員派遣

慶南河東은 嶺湖交通에 處하야 商業交通의 中心地일 뿐만 아니라 全郡에 散在한 公私立小學校가 十三個所로 每年卒業生이 數百名에 達하나 僅히 一割未滿이 上級學校에 就學할 뿐이요 多大數의 兒童은 卒業後彷徨을 未免함으로 그 救濟策에 매우 困難하던바 幸히 道當局에서 今年度에 簡易實業補習學校二三個所를 道內에 設置한다 함으로 此機에 各面有志諸氏는 河東面會議室에 會同하야 此를 討議한 後 卽席에서 道當局에 陳情하기로 하고 陳情委員을 左記와 如히 選定하야 去二十五日卽時出發케 하얏다는데 當地河東靑年會에서도 이 內容을 探聞하고 郡民大會를 開催하는 同時에 具體的으로 該校設置運動에 努力하리라 더라(河東)

◇陳情委員
李恩雨 李輔衡 余璟燁 金宰容 原案太郞

科學硏究會 光陽靑年會主催로

全南光陽靑年會에서는 地方에 잇서서 靑年自體의 敎養問題를 만히 考慮하던中 現代에 處하야는 新科學을 硏究하는 것시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하야 科學硏究會를 組織하고 本月二十六日부터 同靑年會에서 開始하리라는데 그 規定은 大畧如左하다 더라

一、硏究回數=一週三回(月水金曜)
一、硏究發表=巡番硏究發表할 事(光陽)

우리修養團 襄陽에 創立

江原道襄陽郡道川面有志靑年은 修養團을 組織코자 去十日同面狀月里里會議舍에 多數集合하야 朱尙南君의 司會로 創立大會를 開하고 宣言綱領規約을 通過한 後 委員選擧와 諸般事項을 左와 如히 決議하엿다 더라

◇綱領
우리는 일하자 우리는 배우자

◇執行委員
庶務部 朱尙南、金賢起、經理部 金振鎬、金昌鎬、敎養部 崔溟吉 高學在、鄭春興、社交部 鄭忠根 黃億鍾、金榮培、運動部 金相鎬 金宗植 (襄陽)

勇虎團創立 橫城에서

江原道橫城少年新年懇親會席上에서는 새로운 모임을 建設코자 『勇虎團』이라는 少年團體를 組織하엿다는데 綱領과 決議及任員은 如左하다 더라

◇綱領
一、우리는 永遠한 未來社會를 爲하야 참된 사람됨을 期함

◇決議
一、發會式은 來陰正月初五日로 하기로 하고 兼하야 新年市民慰安大會도 이날로 할 것
一、機關誌를 發刊케 할 것
一、其他

◇任員
庶務部委員 吳奎善 敎養部委員 柳昌燁 劉希福 趙秀□ 經理部委員 金建冰 趙明鎬 (橫城)

鐵筆雜誌 『鄕花』發行 淸河靑年會에서

慶北淸河靑年會敎養部에서는 同會機關紙인 『鄕花』를 每月一回編輯發行하되 當地言論界의 關係者로부터 『숨은』 文士들의 詩와 小說民謠童謠時調論文記事等을 一定한 原稿紙에 筆記하야 한 卷冊을 만드러서 郡內一般人士에게 輪讀케 한다는데 其目的은 靑年의 思想統一을 主眼으로 하고 鄕土文藝의 復興을 促하며 아울러 郡內各般事業과 生活의 精神을 鼓吹코저 함이라 하며 方今第二卷第一號가 發行되야 該地方에 만흔 人氣를 엇는 中이며 다른 地方에서는 만히 投稿하야 주기를 바란다 더라(淸河)

永新女學校 維持費를 全擔 고마운 金昌吉氏

榮州郡豐基城內洞豐基耶蘇敎會에서 經營하던 永新女學校는 設立된 後 許多한 英材를 養成하야 오던바 維持方針이 無하야 곳의 閉校케 됨을 본 當地耶蘇敎長老金昌吉氏는 該校維持費全部를 單獨負擔하기로 하엿다 하야 該校在學生及學父兄諸氏는 勿論遠近人士가 稱頌不已한다 더라(榮州)

東光女子夜學 學藝會盛況

義州東光女子夜學會에서는 豫定과 如히 去二十三日當地東禮拜堂에서 學藝會를 開催하야 演說、唱歌、對話、歌劇等三十餘種의 順序를 進行하야 數百餘名觀覽者에게 만흔 興感을 주엇는데 그中 『열세 집』 이라는 理想劇과 『확실의 설흠』 이라는 家庭劇은 더욱 一般의 拍手喝采를 밧는 同時 此夜學會의 優越한 功績은 우리 社會에 만흐리라고 一般의 物論이 藉藉하다 더라(義州)

韶南靑年創立 四面聯合으로

慶北義城郡山雲、召文、佳音、春山四面에서는 靑年의 修養機關이 업서 遺憾이던바 新年벽頭有志의 發起로 去三日山雲面講習所에 모혀 李漸氏의 司會로 四面聯合으로 韶南靑年會를 創立하고 左記任員을 選擧하엿다 더라

◇任員
會長 李泰□ 副會長 朴大煥 總務 朴在喆 書記 徐戰春 各部幹事 李榮仁 外二十一人(義城)

甫靑勞組 廿三日創立

咸南洪原郡甫靑面에서는 勞働者의 團結이 업슴을 크게 遺憾하고 去二十三日松坪里金鎔漸家에 四五十勞働者가 모혀 臨時議長金泳股君의 司會로 甫靑勞働組合創立大會를 開하고 規約을 通過한 後 任員을 選擧하엿다는데 綱領은 追後發表하기로 하고 閉會하엿다 더라 (三湖)

◇委員
執行委員 楊基勳 蔡泰錫 金錫顯 韓泳謝 朴壽鉉 蔡相鎬 金奐洙 金良鎬 金錫疇 朴德鉉 權榮奎

一、香椎漁場選氷人夫盟罷事件을 徹底調査할 것
二、共同戰線을 破壞變節한 罷工에게 警告할 것

씩씩少年臨總

去十四日慶南馬山씩씩修養少年會에서

利原公普新築

咸南利原公立普通學校는 …… 이 狹窄하고 校舍는 分散하여 不便이 만흔바 今般利原郡에서 二萬七千圓의 補助와 六千圓으로 今期春期부터 舊校舍를 헐고 校舍를 新築하리라 더라(利原)

文川全郡靑年 代表者懇談과 郡聯盟의 發起

旣報=咸南文川靑年同盟에서는 去二十一日文川全郡靑年會代表者懇親會를 同事務所內에서 開催하고 『레-닌』 二週忌紀念으로 五分間黙想을 行하고 『레-닌』에 對한 感想講演한 後 諸般事項을 協議하얏는데 協議事項及當日出席團體는 左와 如하다 더라

一、來三十一日郡聯盟發起大會를 開催할 일
一、郡聯盟發起大會의 諸般準備는 文川靑年同盟에 一任할 일
一、其他靑年敎養에 關한 事項

◇出席團體
文川靑年同盟 우리靑年會 龍井勞働團 無窮團 文勇團 松峴靑年會 道昌體育會 光成團 檜南靑年會 東明靑年會 夜學靑年會合十一個團體(文川)

廣德女子夜學發展

咸南定平郡廣德面元上里張亨燮氏는 昨秋부터 女子夜學을 自家에다 創設하고 熱心指導한 結果 益益發展되야 婦女夜學生이 每日增加한다고(新上)

迎日靑年聯盟 執行委員會

慶北迎日靑年聯盟에서는 去二十四日迎日靑年會館內에서 第三回執行委員會를 열고 左와 如히 決議하엿다 더라

◇決議
一、常務執行委員補選의 件(當選常務執行委員 鄭學先君)
一、聯盟團體會員職業別名簿作成의 件
一、舊曆正初를 期하야 各細胞團體訪問의 件
一、迎日少年聯盟組織에 關한 討議(浦港)

會寧女靑革新

咸北會寧邑內에 잇는 會寧女子靑年會에서는 去十三日同會館內에서 第二回定期總會를 開하고 規則及綱領을 全部改正하는 同時 術家庭婦人敎養에 全力을 다하자는 決議가 잇슨 後 委員을 左와 如히 選定하엿다 더라(會寧)

◇執行委員
羅五奎 俞貞柱 愈爭金 尹玉善 金銀松 羅今松 韓福童 蔡貞順 申今女

三千浦靑年會 第四回臨總

慶南三千浦靑年會에서는 去二十四日同會事務室에서 第四回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內部를 充實키 爲하야 會長制를 委員制로 變更하고 左記各項을 決議하얏다 더라

◇決議事項
一、三英幼稚園復興策에 關한 件
一、勞働夜學設立에 關한 件
一、演藝興行에 關한 件
一、會員整理件

◇改選委員
庶務部執行委員 呂仲起 文台東 財政部執行委員 姜鵬秀 金寅洪 敎養部執行委員 金瑀烈 張志爔 藝部執行委員 姜三秀 金乙秀 運動部執行委員 姜金秀 張志洪 社交部執行委員 張末麟 朴斗石 檢査委員 朴石 張志麟

◇演藝興行交涉委員
姜鵬秀 張志麟 朴斗石 姜金秀 文台東 (三千浦)

會館을 維持한 家垈를 팔라 朴東日氏熱心

長興農民共濟會에서는 昨春會館을 新築한 時 借金還償할 道理가 업서 同會館을 賣買케 된바 同會常務委員朴東日氏는 自己家垈를 放賣하야 本會의 借金을 辨濟하고 自己는 妻子와 共히 他人의 挾室에 生活하는바 會員一同은 感激을 不勝하는 同時 更히 氏를 爲하야 家屋을 買與코자 方今努力中이라 더라(長興)

桃源靑年 柴炭市場經營

旌善桃源靑年會에서는 去十六日第一回例會를 開催하고 本會事業으로 昨年부터 問題中이던 柴炭市場經營에 對하야 其間關係當局에 交涉한 顚末報告가 잇슨 後 左와 如히 決議하얏는데 이 問題에 對하야는 一般이 매우 注目한다 더라

◇決議
一、本會實業部事業으로 旌善邑內에 柴炭市場을 設立하고 來三十一日부터 實行하기로 함
一、前項의 目的을 貫徹하기 爲하야 柴炭供給各處와 需用者一般에게 宣傳비라를 配布할 것
一、普祇部主催로 二月一日부터 二個月間夜學會를 開催할 것
一、一般에 衛生觀念을 宣傳하기 爲하야 臨時淸潔을 斷行하는 同時에 柴炭私賣를 監視嚴禁할 것(旌善)

修養靑年定總

馬山修養靑年會에서는 去二十四日當地勞働夜學校內에서 第二回定期總會를 開하고 左記任員改選과 決議가 잇섯다 더라

◇新任委員
姜宗祿 李鍾龍 李祚根 潘寶漢 李桂奉

◇決議
一、創立紀念日을 舊正月初七日로 變更할 일
一、會員募集에 關한 件
一、敎養問題에 關한 件
一、事務所位置變更에 關한 件
一、標語使用에 關한 件(委員會에 一任함)(馬山)

레닌紀念과 禁止

●結局禁止 端川『하자』會에서는 去二十一日卽 『레닌』 逝去二週年을 紀念하기 爲하야 金南山氏는 『레닌을 追悼하면서』 李泰燾氏는 『레닌과 勞農露西亞』 禹正鳳氏는 『無產大衆에 訴함』 金龍三氏는 『一月二十一日』 이란 題로 各共出演하기로 하얏다가 結局禁止되고 마럿다 더라(端川)

●絕對禁止 去二十一日 『레-닌』 紀念은 海州靑年會主催로 各團體聯合追悼式을 擧行하려 하엿스나 警察當局의 絕對禁止로 말엇다 더라(海州)

●追悼盛況 去二十一日慶北榮州郡豐基勞働共濟會館內에서 豐基靑年會、豐基小作組合、豐基勞働共濟會의 四個團體聯合으로 레-닌 第二週年紀念追悼會를 開催하고 各各所感을 述하고 感況裡에 閉會하엿다고(豐基)

●紀念講演 全南光陽郡勞農聯合會와 光陽靑年會主催로 去二十一日 『레-닌』 紀念講演會를 靑年會館에 開催하고 金完根氏의 司會로 五十餘名이 모혀 左와 如히 紀念式을 마친 後 光州靑年會事件報告演說도 잇섯다 더라

一、紀念辭 鄭不平君
一、『레-닌』 略歷 鄭一狂君
一、無產階級과 『레-닌』 辛玄海君 (光陽)

◇寸鐵◇

◇【鳥致院】 鳥木川에는 假經學院直員이 둘식이나 잇다고 自己假인지 假에게 속앗는지 如何間鼻笑는 難免

◇【三陟】 蔚珍郡某村에서는 賭博이 盛行하는데도 當局의 取締가 업다고 한다. 經濟恐慌으로 생각하는 셈인지.

◇【松坡】 衣服을 不公平하게 分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Jan. 27th, 1926.

FLOOD SUFFERS IN KOREA. (1)
From the Chronicle.

To the Editor of the Chronicle;

Sir; You are no doubt aware of the plight of the flood sufferers in the neighborhood of Seoul, and of the efforts which are being made towards their relief by various bodies.

You have also doubtless seen the series of four editorials in the Seoul Press which were prompted by a communication sent to that paper by the writer which was not printed, but which was quoted several times in those articles.

The Government has been doing something to assist the sufferers at the present juncture in the way of providing money for food, but you can see from the enclosed report of an experienced missionary who visited the railroad junction Yetoho yesterday, that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is not going to save many human lives. And this is only one centre out of many.

It was discovered a few days ago that one of the villages head man, at a village near the intake to the city pumping plant, who had received some government money, had bought some food for himself and his brother and a concubine, but for no one else. When the villagers learned of this there was a riot that lasted several days, and it is said that police reserves had to be summoned from the city precincts. Yet that item of news was not published in the Seoul Press.

Your columns are always open to aid a worthy cause, and the relief of these sufferers will be as great a thing to aid perhaps as anything you have helped heretofore. It is said that the area affected by the flood is about sixty miles long on either side of the river, and the amount of the money required to meet the situation ataggers the authorities as the enclosed article admits.

If the government is not prepared to do what is necessary, why not say so and let the Japanese Red Cross, 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or the Near East Relief, supplement its work?

Yours, etc.,
H. T. Owens.

朝鮮의 水害者 (一) 『크로니클』紙

平壤高普動搖

四學年生의三教諭排斥

이십륙일에진정서데출

◇若不應이면同盟休學

평양고등보통학교(平壤高等普通學校) 사학년생일동은이십륙일오전열한시경에영어(英語)교사도진(稻富)과화학대수(化學代數)교사미곡(米谷)과일어(日語)교사무약(武若)등세씨외교수가불충분하다는리유로그들삼씨를가려달라고진정서를제출하얏다는데 만약이에불응하면 사학년일동은동맹휴학을하리라더라(평양지국뎐화)

區長이橫領犯

분묘발굴까지

강원도횡성군정곡면 내정금리(江原道橫城郡井谷面內亭金里) 구장공재선(孔在善)(元)과동주소에원적을둔리필선(李弼善)등두명은당디경찰서에잡혀 엄중한취됴를밧는다는데 이제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전긔두명은 대정십삼년 삼월하순경에 공모하야 동면 당곡산(堂谷山)에 잇는진영목(陳永穆)의부친의분묘를발굴하고 고려자긔(高麗磁器)의계를오배여원의 가격으로 경성에갓다가 팔어먹은 사실이 발로되는동시에 사긔횡령까지 한일이잇다는데 전긔 구장공재선은 대정십년도에 동민이극력으로저축한 백미사석을 면민에게분배하라 할에도 불구하고중간에서 횡령하엿다하며 또그곳면장의 명령과 및 면경비에 보충한다는 긔묘한 수단으로 동면민 매호에대하야 벼(籾)두말식을 바더다가 자긔가독식한 사실등의 죄명으로 인하야그와가티 취됴를 밧는다는데 범인은원주지텽(原州支廳)으로 넘어가리라더라(횡성)

犯行事實全部自白

取調를밧는本町署强盜

그녀자는

漁船一隻去處不明

열두사람의생명이가려

明太漁業禁止 一部解除

處女誘引賣却

特志의青年

解決의曙光이잇다

高敞高普紛糾詳報(二)

魔窟에서呻吟하는

全州의一代名妓金玉珠

高原增設普校의候補地問題硬化

『山谷兒童을위하야』

『日暮路遠하야不達』

人力車夫의飲毒自殺未遂

罰金二十圓에

親父에게煙草주고

悲劇中의悲劇

愛子를其母가壓殺

李孝子를褒賞

地主의非難과稱頌

修羅場으로突變

開市祝賀場이

警官의態度一般은非難

老婆慘死

滿洲踏查(24)

李涵

◇…평양에서열린소년스켓잇…◇